

4. 임상 양상

가. 잠복기⁵⁾

- 일반적으로 7~30일이지만 면역 상태, 원충 종류, 포자소체량 등 여러 영향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
- 삼일열원충, 난형열원충은 수면소체 상태로 간에 잠복하여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재발할 수 있음

나. 임상 증상

- 초기증상은 두통, 식욕부진, 오한,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남
- 삼일열, 난형열말라리아는 48시간 주기, 사일열말라리아는 72시간 주기로 오한, 발열, 해열 등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열대열말라리아는 매일 발생

* 질병 발생 초기에는 이러한 주기성 없이 매일 열이 나며 타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음

1) 삼일열말라리아

- 권태감과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
- 48시간 주기로 오한, 고열,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, 간에 수면소체의 형태로 잠복하여 1차 감염 후 몇 주에서 몇 년 후에 재발 가능
 - 오한기(춥고 떨리는 시기): 글씨를 쓰기 힘들거나 치아가 떨려 말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오한이 나타날 수 있으며 30분~2시간 정도 지속됨
 - 발열기: 39°C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며 심한 두통과 구토, 갈증이 생기며 수 시간 지속됨
 - 발한기: 침구나 옷을 적실 정도로 심하게 땀을 흘린 후 체온이 급격하게 정상화되면서 전신 무력감이 동반됨
 - 두통이나 구역,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음

5) CDC, cdc.gov/malaria/about/disease.html, 2024. 3. 기준

2) 열대열말라리아

- 초기증상은 삼일열말라리아와 유사하나 열발작이 24시간, 36시간, 48시간 등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오한, 기침,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남
 - 중증이 되면 황달, 응고 장애, 신부전, 간부전, 쇼크, 의식장애나 섬망,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출현함
 -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함
 - *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증으로 발전하여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음⁶⁾

3) 난형열말라리아

- 삼일열말라리아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, 간에 수면소체의 형태로 잠복하여 1차 감염 후 몇 주에서 몇 년 후에 재발(Relapse) 가능

4) 사일열말라리아

- 삼일열말라리아와 유사하며 72시간 주기로 발열, 발한 후 해열이 반복됨
- 사일열말라리아의 경우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 내에서 낮은 농도로 장기간 유지되다가 재발(Recrudescence)할 수 있음

5) 원숭이열말라리아

- 사일열말라리아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, 최근 사람의 감염이 확인되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
다. 예후

- 중증말라리아를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거의 100%이지만,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10~20%로 떨어짐⁷⁾
- 중증말라리아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저혈당, 젖산산증이 있으며, 임산부에게서는 사산, 저체중아 출생 등 심각한 문제 발생

6) WHO, www.who.int/news-room/fact-sheets/detail/malaria

7) WHO, Guidelines for malaria, 25 Nov 2022